



“중국은 티베트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벌어진 티베트 유혈사태에 반대하기 위해 티베트평화연대는 매주 수요일 저녁 촛불문화제를 가진다.

# ‘티베트 평화 염원’ 촛불 밝힌다

## 티베트평화연대, 촛불문화제 개최

불교계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벌어진 티베트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한 티베트평화연대가 3월 31일 오후 7시 명동에서 촛불문화제를 가졌다. 티베트평화연대의 이날 촛불문화제는 국제 티베트 지원단체들이 ‘티베트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로 정한 3월 31일을 맞아 한국 내 티베트 지원 사회종교시민단체인 티베트평화

연대도 ‘확살중지, 티베트에 평화를!’을 구호로 함께 활동하기로 약속하며 이뤄진 행사다. 촛불문화제에는 특히 티베트 출신의 탑상 중계 스님과 중앙승가대 교수 출신 스님(일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을 비롯한 학인 스님 30여명이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티베트평화연대는 “중국 정부는 경제 논리로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돼 있는 인간의 가치를 짓밟지 말라”고 촉구하고 한국 정부에도 “세계 12위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 정부가 중국의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지적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촛불문화제는 중국 영사관 근처까지 촛불을 들고 자비명상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티베트평화연대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장진 기자

# 영배스님 실형 받아...향소 예정

## 교단자정센터 ‘퇴진 촉구’ 성명 발표

동국학원 이사장 영배 스님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3월 31일 선고공판에서 영배 스님의 개인사찰인 흥덕사가 특별교부세 대상이 될 수 없었음에도 변양군 前 청와대 실장의 직권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변 前 실장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울산 흥덕사

등이 특별교부세를 받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변양군 前 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고, 신정아씨에게는 학력 위조와 공금 횡령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영배 스님은 향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실형을 선고받은 영배 스님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동섭·여수령 기자

다. 교단자정센터는 4월 1일 성명을 통해 “영배 스님은 과거 이번 사건과 관련 동국대 이사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 만큼 모든 소임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단과 학교에서 책임 있는 공직에 있으면서 사설사암의 불사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는 등 사욕으로 인해 본인은 물론 아까운 불자에게 오명을 쓰게 했다”며 “그렇기에 고위지도자로서의 도의적 양심과, 지도층의 처신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양식 정도의 수준이라도 지켜주길 바란다”며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동섭·여수령 기자

# ‘교회 투표소’ 논란 재점화 예고

## 서울 19%·부산 12% 등 여전히 비율 높아...인권위 권고 무색

4월 9일 치러지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상당수 종교시설에 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3월 30일 공개한 투표소 설치 현황에 따르면 특정종교시설 내 투표소는 전체 투표소의 5%에 이르고, 대도시의 경우는 투표소의 상당수가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종교시설투표소 등 특정종교시설 투표소가 지난 대통령선거 때 집계된 1172곳에서 767곳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는 지난 대선에서 종교시설투표소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난 서울과 부산 선거구역의 종교시설 투표소 비율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종교시설 투표소 비율은 서울 19.3%, 부산 12.3%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 전체 2210개 투표소 중 426개(19.3%)가 종교시설투표소로 집계됐다. 지난 대선 때의 23.1%에서는 약 3.8% 감소한 수치지만 교회 내 투표소는 386개로 전체 종교시설투표소의 90.6%를 차지했다. 지난 대선기간에 설치된 교회 투표소 468개(91.6%)에서 불과 1%(82개소)밖에 줄어들지 않은 수치다. 특히 울산구는 전체 투표소 59곳 중 22곳(37.28%)이 종교시설 투표소이고 이종교 투표소는 20곳(33.9%)에 달한

다. 즉 구내 투표소 3곳 중 1곳이 교회투표소인 셈이다. 은평구 역시 투표소 90곳 중 31곳(34.4%)이 종교시설투표소였고, 이중 29곳(32.2%)이 교회투표소였다. 반면 노원구는 종교시설투표소가 단 1곳에 불과했다. ‘불교 도시’라 불리는 부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전체 868개 투표소 가운데 종교시설투표소는 107개로 약 12.3%에 달한다. 이는 지난 대선 때 집계된 13.6% 보다는 약 1.3% 감소된 수치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도 교회시설 내 투표소가 90개로, 종교시설투표소의 8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 19일 중앙선관위에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하지 말라”고 권고한 사실이 무색할 정도다. 이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세)은 “선관위가 종교시설투표소를 줄였다 홍보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교회시설이 줄어든 것만 집계된 수치”라며 “이번 선거에서는 종교시설투표소 문제가 눈에 띄게 개선되기를 기대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어떻게 대응할지 모색 중”이라 밝혔다. <참고자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2008년 2월 조사자료 여수령·김장진 기자

# 조계종 강원·비구니스님들도 ‘대운하 반대운동’ 동참

4·9총선을 앞두고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주요 선거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불교계의 대운하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와 전국비구니선문회는 3월 30일 공동성명서 ‘한반도 대운하건설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국토를 파괴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운하 사업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끊임없는 기도 와 정진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선명했다. 또한 조계종 전국강원연합회(회장 효진)도 4월 2일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원연합회는 “한반도의 근간인 백두대간과 우리의 산하를 경제성이나 물류혁신이니 하는 논리를 앞세워 파괴하려는 것은 수행 도량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맑고 향기롭고 청정한 마음을 파괴함과 같다”며 “소위 ‘이명박 운하’의 헛된 구상을 거두어줄 것”을 촉구했다. 여수령 기자

# 불교시민단체 공모사업 선정

## 불교아카데미 등 5곳

조계종 사회부(부장 세영)가 주최한 ‘2008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 결과 불교아카데미,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예코부터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나눔의집이 제안한 5개 사업이 선정됐다. 사회부는 3월 28일 심사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2개 단체가 사업을 신청했다. 선정 사업 중 ▲불교아카데미의 ‘중·고령자 제2인생설계프로젝트-4060 M·Y행복설계아카데미’ ▲인드라마생명공동체의 ‘신산중운동: 불교농촌살리기 운동’ ▲예코

부터다의 ‘나비와 함께하는 불자 환경실천 지침서 만들기’에는 각각 10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의 ‘제3회 동대문구 방과후교실 연합생태체험&템플스테이 난대로 결대로’ ▲나눔의집의 ‘평화의 길과 모색’에는 각각 480만원, 660만원이 지원된다. 공모사업 지원금으로 책정된 4500만원 중 4100만원은 지원금으로, 잔여금은 우수 평가 사업의 홍보에 쓰인다. 한편, 사회부는 각 사업이 종료된 후 2009년 1월 결과발표회를 개최하고 결과자료집도 제작·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여수령 기자

# 불교방송, IPTV사업 진출

불교방송(이사장 영담)은 4월 1일 IPTV 진출을 골자로 한 영상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영담 스님은 “불교TV의 통합체의 거부와 관계없이 불교방송의 영상분야 진출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영상 사업 진출을 위해 지난 2년 이상 인터넷 TV에 투자해왔다는 불교방송은 현재 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한 스튜디오 개선 공사를 시작으로 차후 30~40억 원을 들여 영상 방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통합미디어를 갖추기 위해 BBS 라디오 방송과 별도로, BBS저널을 주간 발행으로 전환하고 판행과 제호도 리뉴얼한다. 영담 스님은 “IPTV 사업 진출을 계기로 불교TV와 불교방송의 선의의 경쟁이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붓다뉴스(www.buddhanews.com)를 클릭하면 ▼ 東大 로스쿨 인가 ‘서명운동’ 동참 가능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물걸레 로봇청소기 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가격: ₩ 275,000

www.mamirobot.co.kr

Mamirobot (주)경민메카트로닉스 NAVER 7년이상 마미로봇은 처음입니다

# DK 명품 특가전

※ 본제품의 귀고리 장식은 은제품에 이은 도금한 것임.  
※ 단체 주문시 원하는 문구를 각인하여 드립니다. 예) 범명,범어,사찰명 등

DKB1-1, DKB1-2, DKB1-3, DKB1-4, DKB1-5, DKB1-6, DKB2-1, DKB2-2, DKB2-3, DKB2-4, DKB2-5, DKB2-6, DKB2-7, DKB2-8, DKB2-9, DKB2-10, DKB2-11, DKB2-12, DKB2-13, DKB2-14, DKB2-15, DKB2-16, DKB2-17, DKB2-18, DKB2-19, DKB2-20, DKB2-21, DKB2-22, DKB2-23, DKB2-24, DKB2-25, DKB2-26, DKB2-27, DKB2-28, DKB2-29, DKB2-30, DKB2-31, DKB2-32, DKB2-33, DKB2-34, DKB2-35, DKB2-36, DKB2-37, DKB2-38, DKB2-39, DKB2-40, DKB2-41, DKB2-42, DKB2-43, DKB2-44, DKB2-45, DKB2-46, DKB2-47, DKB2-48, DKB2-49, DKB2-50, DKB2-51, DKB2-52, DKB2-53, DKB2-54, DKB2-55, DKB2-56, DKB2-57, DKB2-58, DKB2-59, DKB2-60, DKB2-61, DKB2-62, DKB2-63, DKB2-64, DKB2-65, DKB2-66, DKB2-67, DKB2-68, DKB2-69, DKB2-70, DKB2-71, DKB2-72, DKB2-73, DKB2-74, DKB2-75, DKB2-76, DKB2-77, DKB2-78, DKB2-79, DKB2-80, DKB2-81, DKB2-82, DKB2-83, DKB2-84, DKB2-85, DKB2-86, DKB2-87, DKB2-88, DKB2-89, DKB2-90, DKB2-91, DKB2-92, DKB2-93, DKB2-94, DKB2-95, DKB2-96, DKB2-97, DKB2-98, DKB2-99, DKB2-100

품질보증서

DK상사 TEL 02)2043-3511~2 / FAX 02)2043-3513

서울 송파구 거여동 174-7번지 풍산빌딩 202호

• 소중한 사람에게 자비로운 부처님의 마음을 담아 전하세요. • 불교와 패션이 함께합니다.

• 훈이 담긴 장인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 고급스러움과 품격이 더하는 명품을 간직하세요.